

박물관의 운영철학과 활성화 전략

김 권 구*

목 차

1. 머 리 말
2. 변화하는 21세기에 맞는 박물관의 운영철학
3. 박물관 활성화의 전략
4. 맺 음 말

1. 머 리 말

1960년대이래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공립 박물관, 사립박물관, 그리고 대학박물관 등을 포함한 각종 박물관의 수가 점차 늘어왔고 요즘은 박물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사항도 점차 많아지고 그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일반적 요구사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은 적게! 봉사는 많이!' (Less taxation! More services!)의 자세로 국·공·사립 박물관에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박물관 소장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체계적인 정리와 유지관리와 같은 많은 시간과 노동이 소요되지만 일반 국민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박물관의 가장 본질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시간보다는 전시와 사회교육 등과 같은 겉으로 나타나는 일의 수행에 훨씬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대한 일반적 인상은 한편으로는 아직도 '먼지 쌓인 골동품 정도나 닦고 있는 한가한 곳' 정도이지 않은가 추정된다.

박물관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이 어렵지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국민적 요구사항이나 기대에 필요 최소한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박물관 사람들의 의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물관의 전문인력 절대부족, 박물관

* 국립 대구박물관 관장

운영조직 체계의 미비, 예산과 시설의 부족 등과 같은 인적, 구조적 문제와 박물관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 등과 같은 환경적 제약요소 때문에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박물관의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과 열정을 가지고 현재 각각의 박물관이 처한 장단기적 難題를 돌파하려는 전략을 짜고 추진하는 자세와 그것의 실천이다. 절대로 현실에 대한 체념상태에 빠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박물관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박물관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박물관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그것이 갖는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를 통해 박물관에 대한 국민적, 범정부적, 사회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박물관 직원들의 열정과 철학 그리고 박물관 활성화 전략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점은 대학박물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박물관의 운영철학과 그러한 철학을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대학 박물관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박물관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전문인력, 전시시설과 수장시설, 그리고 사업예산 등의 대폭 확충과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립대구박물관의 운영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변화하는 21세기에 맞는 박물관의 운영철학

박물관의 운영철학은 시대, 장소, 개인에 따라, 또는 박물관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Singleton 1979). 박물관의 운영철학과 관련된 질문과 논쟁거리(Foster 1979)는 무수히 많이 있다. 그러나 박물관은 종류에 따라 성격은 다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와서 지식을 탐구하고 넓히는 열린 학습공간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쉽고 흥미 있게 방문객들이 학습할 수 있게 박물관 전시물과 학습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스스로 생각하며 자료를 살펴보도록 도와주어, 기존의 통설적 견해를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비판력, 논리 전개능력, 그리고 상상력을 키우면서 자기 견해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열린 학습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박물관 운영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철학의

개념적 범주와 왜 그것들이 중요한 지를 일깨우고자 한다. 그들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 '박물관 소장유물을 포함한 과거를 누가 소유하는가?' (McBryde 1985, Renfrew and Bahn 1996), '박물관 소장유물을 포함한 과거를 누가 필요로 하는가?', '누가 박물관에 자주 오고 누가 자주 오지 않는가? 자주오지 않는 사람이나 계층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박물관에 자주 오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박물관 전시는 어느 시각에 의해 분류되고 해석되어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식과 통설적 견해가 과거에도 변했고, 현재에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 과학적 지식의 성격일 때 우리는 어떻게 전시를 하고 과거를 일반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하는가?(Tanner 1987) 통설적 견해는 어떻게 증명되었는가?(Salmon 1982) 지금의 통설적 견해나 영향력 있는 견해를 일반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나치 독일의 왜곡된 역사관은 당시 어떻게 일반에게 강요되었는가? 우리는 나치 독일이 역사교육과정에서 저질렀던 과오를 부지불식간에 저지르고 있는 점은 없는가?(Kohl and Faucett 1995, Graves-Brown, Jones and Gamble 1996) 그렇다면 우리는 박물관 전시를 통하여 일반에게 전하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시를 해야하는가? 관람자 일반이 스스로 생각하며 비판적 역사의식과 논리적 사고력, 문화적 상상력을 키우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현실 세계에 있어서 정치·사회적인 여건에 의해 논의가 제약되어, 박물관 전시에서 다루기를 기피해왔던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즉 세계 여러 민족마다의 사회적 禁忌와 神話는 무엇이고 그것들은 박물관 전시에 어떻게 투영되어져 왔나?' (Atkinson, Banks, O' Sullivan 1996, Graves-Brown, Jones, Gamble 1996, Shennan 1989)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우수한 박물관의 전시에 나타나는 미국 원주민이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인가? 혹시 미국 원주민들의 문화발전능력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유럽 이주민들의 이주와 정복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을 확대 재생산 하고 있지 않은가?' (Trigger 1980 그리고 1985), '왜 우리민족의 역사에 관한 박물관에서의 전시가 남북 간에 달라야 하는가? 단군릉의 발굴주장과 단군릉 개건 등 단군과 관련되어 북한에서 범한 오류를 우리는 혹시 범하고있지 않은가?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암기를 통하여 배운 서로 상충되는 역사적 지식을 가진 남북의 주민이 만나서 서로가 배운 역사가 옳다고 각각 주장할 때, 그러한 갈등을 박물관의 전시나 교육활동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박물관 전시에서 여성이 분담해온 사회적 역할은 남성의 역할에 비해, 얼마만큼 적절하게 표현되어 왔는가? 혹시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시되어온 것은 아닌가?', '객관과 주관이란 존재할 수 있는가?(Rowlands 1984) 그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박물관

전시에서 얼마만큼 옳은가? 객관성(Salmon 1982)과 주관성이란 개념대신 신뢰성과 타당성이란 기준을 사용할 수는 없는가?,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과거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평가하고 해석하여 전시하는 것이 얼마만큼 타당한가?' (Lowenthal 1985), '박물관 전시의 설명문을 쓸 때 주된 목표집단으로 누구를 삼아야 하고, 설명문의 수준과 전시물의 눈높이를 어느 곳에 맞추어야 하는가?, 평균 국민교육 수준에 설명문의 난이도 정도를 맞추면 되는가?', '박물관 유물구입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과 박물관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가?' (ICOM 1986, Boylan 1976 그리고 1977, Tanner 1987), '박물관 소장유물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보존하고 문화유적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하고 왜 무엇을 보존하는가?' (Cleere 1984, Hunter and Ralston 1993, Lynott 1997, King 1983),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박물관은 전통적인 역할이외에 새로이 경제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박물관은 어떻게 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Gilmour 1979) '박물관에의 출입은 나이, 성별, 직업, 지위, 인종, 지식수준 등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관람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유치원 어린이들의 출입은 일반 관람자들의 차분한 관람분위기를 방해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옳은가? 또 박물관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대폭 인상하여 박물관에 들어온 관람객들이 차분하고 조용하게 전시물을 감상하게 하고 입장료 수익금은 또 다른 특별전을 개최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의 추가적 개최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3. 박물관 활성화의 전략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박물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국립대구박물관의 경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한다. 물론 이런 전략 또한 하나의 시도이며 완벽한 것도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개

1) 미국 미소니언박물관, 대영박물관 등이 재산의 多寡와 상관없이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물관을 공개한다는 면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영박물관의 경우 너무 많은 관람객이 붐비 관람객들이 차분하게 전시를 관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영국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과 국립해양박물관은 상당한 입장료(5-6 파운드/약 9,000-10,000원 정도)를 받고 있다.

선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언적으로 언급해 놓은 것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국립대구박물관이 취했던 박물관 활성화 전략은 현재로서는 볼거리도 충분하지 않고 박물관의 인력과 예산 시설 모두가 부족하지만 그냥 체념하고만 있기보다는 이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우선 박물관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박물관 인력, 예산, 그리고 시설 등의 확충의 필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호응을 얻고 명분을 축적해나가자는 것이었다. 그 박물관 활성화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만나는 시공을 초월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배움이 있는 관람객들에게 늘 편하고 푸근해야 하는 열린 학습공간이어야 한다.

관람객이 와서 어딘지 불편함과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들은 한번은 올 수도 있겠지만 두 번 이상은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도 단체로 한번쯤은 박물관에 오게될 텐데, 이때 이들에게 가능하면 박물관이 흥미를 끄는 것이 많은 다시 가보고 싶은 학습장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2-3 시간의 여유시간이 났을 때, 박물관에 갈까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할까를 고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컴퓨터 게임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이유는 컴퓨터 게임이 박물관 보다 훨씬 흥미 있고, 컴퓨터 게임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게임에 참가하여 잘할수록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서는 의사전달방식이 상호 교호적(interactive)인데, 박물관 전시에서는 의사전달방식이 대부분 일방적이다.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체험학습실, 문화사랑방, 자연학습장, 놀이와 학습공간으로서의 야외 동산, 시문학동산 등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박물관 실내에서는 차분히 문화재를 감상하고 탐구하며 또 직접적 체험을 통하여 지식을 배울 수도 있게 하였고, 야외에서는 마음껏 뛰놀며 휴식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국립대구박물관의 입장객 수는 1998년 약 25만 명이었고, 1999년에는 약 38만 명이였다. 1999년에는 평년보다 관람객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여러 측면에서 행한 박물관의 노력도 어느 정도는 관람객 수가 대폭 증가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2) 박물관 전시의 일반적인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의사전달 방식의 일방성 문제와 沒脈絡性 문제(유물이 사용되거나 버려진 맥락이 무시된 채 유물이 예술품으로만 전시되는 성향이 있는 문제)를 보완하거나 극복해 보려는 노력을 한다.

3) 관람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기며 박물관의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가능하면 교육 또는 배움이 여가 또는 오락과 함께 어우러진 개념(education + entertainment = edutainment)으로 박물관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본다. 동일한 행위를 하여도 어떤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노동이 되고 어떤 때는 즐거움을 주는 오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관람객들이 박물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즐거움 속에서 배움과 휴식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본다.

4) 전시의 설명을 가능한 한 간단하고 쉬우며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만들어 본다. (Make it simple, easy, and funny.)

박물관 전시실의 판넬도 점차 쉽게 만들어가고 박물관 만화 도록인 ‘아빠, 우리 박물관 구경가요!’ 도 출간했다. 또 어린이들에게 박물관에서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앙케이트를 통해 조사하여 그를 토대로 ‘박물관에서 배우는 100문 100답’ 이라는 책도 만들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박물관 만화 도록을 대형 판넬로 제작하여 특별전이 개최되지 않을 때, 기획전시실에서 어린이를 위한 대구박물관 만화 특별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아빠, 우리 박물관 구경가요!’, ‘박물관에서 배우는 100문 100답’, ‘박물관에서 보는 동·식물 안내’ 등은 박물관 야외동산의 학습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5) 展示를 하고 설명 판넬 등을 준비한다면 이는 누군가가 와서 보고 읽으라는 뜻일 것이다. 이때 주요 목표집단(target group), 展示시기(time), 그리고 展示제목(title)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6) 박물관에서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문화의 학습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한다.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박물관에 자주 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국립대구박물관은 오페라, 전통무용과 국악, 그리고 음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우수영화도 계속 상영하고 있다.

7) 박물관 전시실뿐만 아니라 야외정원과 뒷동산 모두를 다목적으로 사용한다. 야외정원과 뒷동산을 문화학습공간, 자연학습공간, 휴식공간, 산림 휴양욕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박물관에 와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즐기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본다. 박물관 정원과 뒷동산에는 전통염료식물과 약초식물 학습장, 역사공원, 천자문학습장, 문학동산, 들꽃산책길, 자연학습장과 우리 곡식학습장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8) 관람객의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전시실내 뿐만 아니라 야외동산에도 의자를 설치하여 쉴 수 있게 하였으며, 비가 오는 날에도 약 60여명이 도시락 등을 먹을 수 있는 야외 휴게소도 약초와 염료 학습장 사이에 만들어 전통염료식물과 약초 식물의 학습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9)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물관특설강좌, 청소년문화강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특별강연, 공연 등의 문화행사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이 이외에도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박물관 방문시 지켜야하는 예절과 전시물을 포함한 교육내용을 사전에 가르칠 수 있어서 박물관 교육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유치원 선생님과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주야간의 문화강좌의 운영이 있는데, 이렇게 파급효과가 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본다.

10) 직원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은 필수 불가결함으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대구박물관 대학을 수료한 약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문화사랑방과 체험학습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박물관의 시설운동을 돕고 있다. 앞으로 상설전시실의 안내와 특별전 개최시 특별전의 안내 그리고 물품보관소와 안내실의 운영도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11) 부족한 예산상황에도 여러 문화 행사를 하려면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협조와 물품기증도 받아,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박물관의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한다. 그동안 국립대구박물관에

는 역사와 문화관련 최신도서 천 여권이 기증되어 박물관의 열린 도서실인 문화사랑방에 비치되어 활용되고 있고, 그랜드 피아노와 복사기도 기증된바 있으며, 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후원도 이루어진바 있다. 또 유물과 전시 보조 자료의 기증도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외에도 국립대구박물관 홈페이지도 지역의 관계회사가 무료로 개발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해 주고 있다.

12) 박물관에 대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더불어 일반 관람객들이 박물관의 존재를 알고 찾아오기 쉽도록 교통안내판을 많이 만들어 달도록 관련 자치단체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 대구광역시는 국립대구박물관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을 대구 시내 40여 곳에 부착하여 박물관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13) 24시간 일반인들이 박물관과 문화재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국립대구박물관 홈페이지([HTTP://WWW.TGMUSEUM.ORG](http://www.tgmuseum.org))를 운영한다. 국립대구박물관의 이 홈페이지는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여러 박물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수 박물관 홈페이지에도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대구박물관 홈페이지에는 월 평균 6,000여건을 상회하는 접속이 이루어져, 개통 이후 약 1년 6개월만에 접속횟수가 103,800여회(2000. 9. 26 기준)를 넘고 있다.

14) 강당과 특별 전시실 등과 같은 박물관 시설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행사일 경우 지역의 학술단체나 예술단체에 무료로 대여해주어 지역의 학술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며,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박물관에 친숙해지게 한다. 1999년에는 연극, 영화, 오페라, 음악회 국악공연 등 20여 회에 걸친 공연이 있었고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2000년 3월에는 주한영국 문화원과 공동주최로 영국 음악가의 피아노 독주회 공연도 가진 바 있다.

15) 박물관이 수행해오던 소장품²⁾의 수집, 보관, 보존관리, 연구, 전시, 교육 등과 같은 전통

2) 박물관의 소장품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재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맥락을 보여주는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 교육 학문적 가치(educational and academic values), 상품개발 및 디자인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에 활용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s), 지혜를 얻는 자원으로서의 가치(resource values), 레저에의 활용가치(recreational values), 문화재 그 자체의 미적인 가치(aesthetic values)를 가지고 있어서(English Heritage 1997: 4, Lipe 1984),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적인 기능 이외에도, 21세기 산업사회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꼭 필요한, 특히 경제발전 전에 꼭 필요한 기능을 박물관이 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Emery-Wallis 1979, Lickorish 1979, Montagu of Beaulieu 1979, Ambrose 1988). 예를 들어 대구는 밀라노프로젝트라는 섬유 패션산업을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는데 '섬유 원사를 생산하는 것은 기술이어서 깊은 산골이나 외딴 섬에도 섬유직조를 하는 기계시설과 인력을 투입하면 만들어 낼 수 있으나, 고부가가치 첨단 패션상품을 만드는 것은 문화이어서 활성화된 박물관으로 대표될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음을 알린다. 특히 박물관에는 다양한 문양과 색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유물이 있어서 잘 활용만 하면 끊임없이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무공해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정보센터가 될 수도 있음을 알린다. 실제 박물관의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은 사실이며, 21세기 경제발전은 이제 문화와 과학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며, 문화적·과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열린학습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의 잠재성을 일깨워야 하며, 이의 성공적 수행여부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의 정도와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박물관을 잘 활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발전도 좌우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박물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산업(heritage industry)은 우리 기술, 우리 인력, 우리 재료로 100% 외화가득들의 무공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므로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에 이의 활용이 꼭 필요함을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 또 21세기에 있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도로·항만 등의 하드웨어적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간접자본인 문화 인프라임을 함께 일깨워야 한다.

16) 주변 공공기관과 가능한 한 연계하여 방문객들의 효율적 시간사용과 편의를 도모한다.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경우 소속 박물관 16개 대부분이 스미소니언 몰(Smithsonian Mall)이라는 곳에 모여있어 박물관거리를 형성하고 있고, 영국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South Kensington)에도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과학 박물관, 지질학박물관 등이 함께 모여 박물관 거리를 이루고 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동일한 범어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회관, 과학관, 청소년회관과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범어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박물관 산책로와 역사공원 그리고 우리 곡식 학습장을 만들고 박물관 후문을 새로이 만들어 열어 놓았다.

4. 맺음 말

위에서는 박물관 운영철학과 국립대구박물관의 활성화 전략과 추진사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시도이며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박물관 본연의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했어야 했다는 자책감도 지울 수 없다.

국립대구박물관은 현재 많은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인력의 대폭확충, 사회교육관과 수장고 그리고 전시공간의 대폭 확충, 사업예산의 대폭확충 등의 현안문제가 그것이다. 국립대구박물관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없이는 소장유물의 정리, 보관, 보존, 전시, 연구, 사회교육 등의 박물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현안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과 유물의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관리와 같은 외부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박물관이면 반드시 해야하는 고유기능을 수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대학 박물관을 포함한 모든 박물관이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앞으로 보다 더 개성이 있는 박물관으로 거듭 나아되는 과제와 볼거리, 공부거리, 놀거리, 쉴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다 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친근한 열린 박물관 그리고 수준 높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토대를 둔 기획전시가 열릴 수 있는 수준 높은 학술연구기관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필자는 국립대구박물관이 당면한 이러한 시급한 과제를 풀고 박물관의 중요성과 경제적 잠재가치를 일깨우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일으키고자 위에서 언급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 박물관의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보았다. 이러한 전략과 활성화방안은 물론 박물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가치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 운영철학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박물관 관계자가 끊임없이 고민해 나아가야할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한다.